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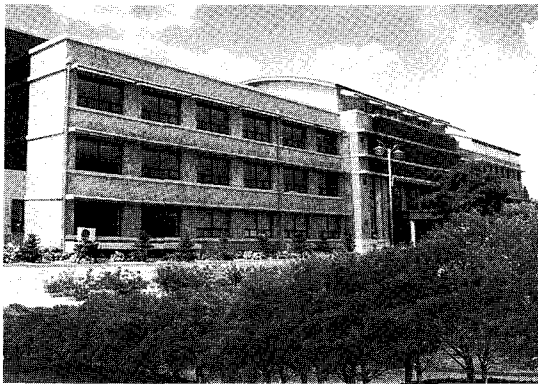
양계인 육성 전문학교를 찾아서...

WTO출범으로 우리 농업분야도 개방화, 세계화의 급물살을 타면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전문학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내의 전문 후계 농업인(양계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찾아 교육과정, 혜택, 입학정보 등을 소개함으로써, 침체되어가는 양계업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자녀들에게 양계를 기업으로 물려주고 싶은 양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취재/김동진 차장, 학교순서는 가나다순) -편집자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양계경영과)

충분한 실습장 활용을 통한 양계인 육성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위치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학장 두창목)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기초교육을 양성시켜 졸업 후 농촌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년제 단기 농업교육시설로, 지난 1996년 설립되어 6회에 걸쳐 277명의 졸업생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에 위치한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전경

을 배출하면서 농업을 이끌어 가는 교육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는 2.4km에 걸쳐 펼쳐진 33만평의 광활한 대지에 축산과 원예계열에 관련된 각종 농장 및 시설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곳이 마치 선진 농업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장, 사료공장, 우유공장, 햄공장, 간이 도계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해주는 농업교육의 산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1일 최고 100톤(8시간 기준 4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료공장은 낙농, 한우, 양돈, 양계 및 기타 가축들의 사료를 자체적으로 배합하여 공급하고 있다. 사료원료는 농협을 통해서 들여오고 있으며, 사료 작물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재배,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경우 1학년은 계열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2학년은 전공 학과별로 운영하는데 1학년은 축산계열(40명)과 원예계열(60명)로 나뉘어 농업에 대한 기초과정을 학습하고, 2학년에는 양계경영을 비롯한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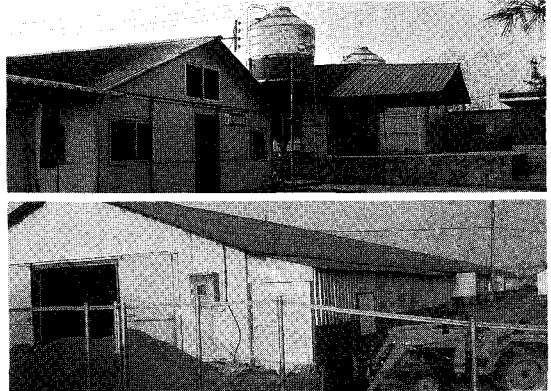
농, 양돈, 채소, 과수, 화훼 등 6개 학과로 나뉘어 전공에 따라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양계경영학과는 국내 어느 대학교에도 없는 유일의 학과로, 양계업에 관한 현장실습을 위주로 교육을 이수하면서 양계경영 전문인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양계경영과 졸업생은 총 71명으로 이중 30%에 해당하는 졸업생들이 양계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학중인 양계경영과 학생은 2학년에 8명이 학업중에 있으며, 1학년 축산계열에서도 8~9명의 학생들이 양계경영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계경영과는 한상복(육계담당) 교수와 박해준(산란계담당) 교수가 담당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습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자동화 무창계사의 운용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한 기록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양계에 관련된 법규학습 등 실질적으로 양계를 경영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되고 있다.

현재 실습농장에는 산란계의 경우 무창 4단 8열의 3만수, 평사 2만수로 총 5만수, 육계는



▲ 33만평의 넓은 대지위에 자리잡은 실습 양계장 (산란농장-상, 육계농장-하)

2만수규모의 무창 자동계사의 농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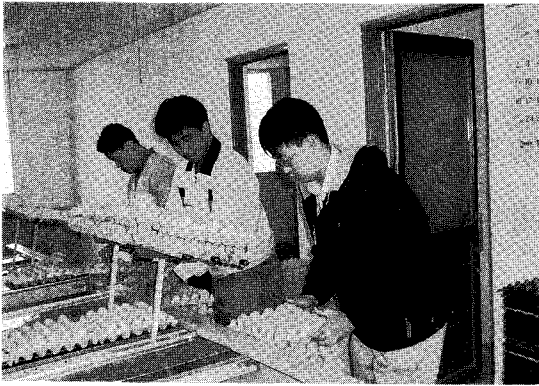
육계의 경우는 2인 1조(1학년 1명, 2학년 1명)로 학생들이 직접 입식에서 출하까지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1년에 5회전을 할 경우 양계를 전공한 학생들이 최소한 1번 이상 농장을 직접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경영을 하면서 얻는 성적을 보면 평균 생존율이 97% 이상, 생산지수가 230~240을 유지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다. 이같은 요인으로 한상복 교수는 최신식 시설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의욕 넘치는 학구열,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 회전이 끝나면 사례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비교한다.

육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복 교수는 닭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집에 가지 못하고 학생들과 농장을 지키면서 현장 지도를 해줄 정도로 열성적이다. 박해준 교수 또한 산란계 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직접 보여주는데 헌신을 다하고 있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수업료



▲ 양계업을 지도하고 있는 박해준(좌), 한상복(우) 교수



▲ 양계에 뜻을 갖고 실습에 열중하고 있는 양계학도들

전액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전문대 졸업과 동등 학력이 인정된다. 또한 졸업후 후계농업인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정되어 3년간 농장에서 일할 경우 군대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 기숙사 입사 가능, 식비지원, 재학기간 중 국내외연수실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외연수는 선진기술을 배우는 자리도 마련되고 있는데 프랑스, 일본, 덴마크, 이스라엘 등 양계 선진국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지난해까지 졸업한 277명중 영농을 하는 학생은 103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 49명(18%), 동일계 진학 39명(14%), 군입대 73명(26%), 기타 13명(5%)로 집계되고 있어 졸업생의 1/3이 넘는 학생들이 농업후계인으로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고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학교 추천을 받아야 하고, 비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였어도 영농의욕이 강한자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소장 중 1인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

으로 선발을 하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양가라 하더라도 사이버교육에 의한 학습도 가능하므로 사이버 학습을 원하는 사양가들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학교에 나오고 나머지 시간은 영농을 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사이버학습을 통해 학업을 이수할 수 있다.

두창목 학장은 본교가 사료공장, 우유가공공장, 소세지 공장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용으로만 이용하다보니 시설의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료공장의 경우 앞으로 본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농촌에 정착할 경우 학교에서 생산된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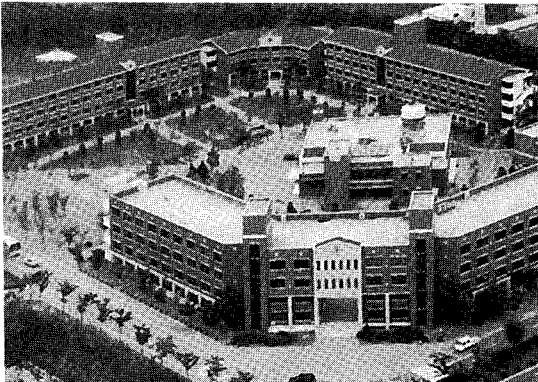
금년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본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2004년 1월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기타 문의 사항 031-883-8272, 한상복 교수)

한국농업전문학교

(축산학과 양계전공)

3년제 도제교육방식(Sandwich System)으로 정예 양계인 육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한국농업전문학교(학장 박해상)는 국내 유일의 3년제 국립전문대학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육성을 위해 지난 1997년에 설립되었다. 본교는 농촌진흥청 산하로 농촌진흥청 내의 모든 시설을 학생들이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전경

한 학기 학교의 모집 정원은 총 240명으로 축산과의 경우 지원자들의 경쟁이 높아 40명이던 정원을 2003년부터 60명으로 증원하였다.

양계업 전공학생은 지금까지 4기동안 총 11명(학년당 3명)이 졸업하였으며, 졸업생들은 현재 농장에서 부모를 도와 양계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계업 전공 재학생은 10명(1, 2학년 각각 5명)으로 2학년은 국내의 실습중에 있어 현재는 1학년 학생들만이 학교에서 기본교육과정을 밟고 있다. 양계업 담당교수는 노환국 교수(축산학과)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 등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맡고 있으며, 이장형 교수(축산학과)도 초창기부터 2002년까지 양계업을 지도한 바 있고 노교수와 함께 축산학도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교수는 수의학을 전공한 관계로 양계업을 경영함에 있어 질병분야에 특히 역점을 두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자영기반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졸업 후 대부분 농촌에 정착하여 한국의 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타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학교에 들어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특전을 보면, 입학생 전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육교재비 등 학비 전액이 무료로 국비에서 지원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전교생에게 숙식비 전액이 지원된다. 본교를 졸업하면 전문 학사학위가 수여되며,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동안 농장에서 농장관리를 할 경우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후계농업인으로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약 60여명)에게는 2학년 실습과정의 일환으로 미국 등 해외에 1년동안 파견실습의 기회가 주어지며, 국내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2주간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1단계로 학교에서의 기본교육(1학년 과정), 2단계로 국내외 선진농장 파견실습(2학년 과정), 3단계로 학교에서의 심화교육, 종합교육(3학년 과정) 과정으로 도제교육방식(Sandwich System)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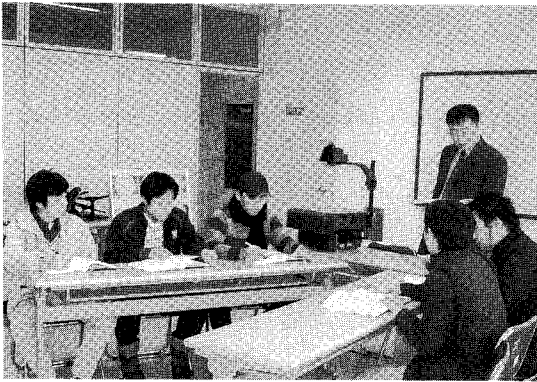
1학년 교육은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강인



▲ 축산학과 이장형 교수(좌)와 노환국 교수(양계업담당, 우)



▲ 양계업을 전공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축산관 앞에서



▲ 강의실에서의 학습은 진지하지만 하다.

한 영농정착 의지를 형성에 역점을 두어 성공한 농업인, 농업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 위주로 교육되며, 외국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불편없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2학년 과정은 국내외 선진농장 현장실습을 체험학습방식으로 10개월 이상 실시하고 현장 실습 농장주를 현장교수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희망자에 한해 국제감각을 넓히기 위해 외국 선진농장(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1년동안 연수하며, 전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간부들이 지역 실습농장을 수시 방문하여 현장 지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금년 1학

년중 축산과에서는 13명의 학생들이 외국실습을 희망하여 내년 1월 중순에 출국할 예정이다.

3학년 과정은 2학년 장기현장 실습결과를 토대로 세미나식 교육과 졸업 후 영농승계 및 창업설계서 작성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설계서는 10년동안의 영농계획을 작성하여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하며, 창업설계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교육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기숙사 생활도 엄격하다.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저녁 10시에 인원점검을 하고, 이유없이 이탈할 경우는 벌점제를 도입하여 규정에 어긋나는 벌점을 얻으면 퇴학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농업에 뜻을 가진 학생들만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졸업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후배들을 초청하여 현장학습을 활용한다든지 학교를 방문하여 경험담을 들려주는 동선후배간의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있다.

학생모집 방법은 수시모집으로 7월에 20%를 모집하고, 나머지 80%는 2월에 모집한다. 모집방법은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접수를 받는데, 응모자격은 고졸이상의 37세 미만으로 출신고등학교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영농정착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 졸업생은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6년동안을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금년 일반전형의 원서교부는 12월 1일부터 1달간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229-5033(노환국 교수)번으로 하면 된다. **양계**